

# Shim Moon-Seup | The presentation

5 ~ 25 November, 2008

나무, 흙, 물, 빛, 돌, 풀, 네온... 심문섭이 1970년대 초 이후의 작업에 사용했던 재료들을 보면 그가 완전히 '아르테 포베라' 예술가 중의 한 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지리학적 이유로도 그렇지만, 그의 예술적 행보가 이 운동의 주역들과 다른 토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심문섭은 토리노는 물론 이탈리아의 어떤 예술운동에도 참여한 바 없다. 그렇지만 아르테 포베라의 구성원이었던 주세페 페노네, 마리오 메르츠, 조반니 안젤모, 피에르 파올로 칼줄라리 등과 같이 심문섭도 재료의 선택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고, 그 자신이 계속해서 사용해왔던 재료들을 지칭하기 위한 형용사로서 '가난한' 혹은 '절제된'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또한 항상 자신의 작업들이 놓이게 될 공간에 대해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심문섭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더불어 자랐고, 자연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당연히 그는 간단하고 기초적인 재료들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자연적 질료에 이르기 위해 재료들의 본성을 탐구했다. 그리고 그가 근원 즉, 원래적 의미에서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면을 좋아하는 것도 무엇보다 덩어리로 잘려진 나무의 날것 그대로의 속성이나 물의 순수성에서 나오는 밀도와 힘을 위해서이다. 더 나아가 그 같은 요소들의 특유한 성질과 내재적인 힘을 위해서이다. 심문섭이 추구하는 것은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재료들이 병치되면서 탄생하는 만남이나 대화이다. 그의 작업은 어떤 대립적인 것들, 이질적인 단단한 것과 부드러운 것, 직선과 곡선, 수직선과 수평선, 자연(돌)과 산업(철판) 등이 접촉해서 만들어지는 긴장과 균형의 관계를 보여준다.

우리는 그의 작업이 드러나는 방식에서 이 모순의 놀이와 조화에 대한 탐구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심문섭은 조각의 조형적인 면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것들까지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각 작품의 형태, 그 존재 그리고 한 장소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한 위치들은 작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드러내기 위해 숙고된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작품 주변의 공간과 작품이 그 주위 환경과 대화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고 내면의 공간에서 진실한 것은 외면의 공간에서 훨씬 더 진실하다. 2007년 봄 파리의 팔레 루알 정원에서 열린 심문섭의 전시는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었다. '성을 향하여' 라는 제목의 작품은 바다와 거의 무관한 이 정원에서 관객들은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여정에 초대되어 나무들 사이로 놓인 가로수 길을 따라가다가 잔디와 분수 위에 설치된 십여 개의 작품들을 발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꾸며졌다. 어떤 작품들은 그물이나 날아다니는 배처럼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나뭇가지 속에 혹은 아주 미세한 바람에도 풀밭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고안된 투명한 원통형 튜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다른 작품들은 반사를 창조하거나 분수처럼 역할하도록 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다른 것들은 나무와 철로 만들어져 단단하게 땅에 고정되어 줄을 잘 맞추어 세워져 있었다. 공기, 물, 흙 등의 주요 요소들이 주의를 끌었고, 관객들은 자신들이 초대된 이 입문적이고 시적인 여행을 완수하기 위해 올라다보거나, 구부리거나 하면서 시점들을 발견해야 했고, 그러는 동안 이 정원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이것이 심문섭이 주변의 자연(인공적인 아니든)을 드러내고, 작품들을 그것이 섞이고 있는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 놓이게 하는, 그래서 자신의 작품들을 어떤 컨텍스트 안에 꼭 들어맞게 하는 방식의 완벽한 예이다. 원래 원칙은 작품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치와 환경과 함께 작품을 구성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식은 종종 우발적이며 순간적이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들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시간, 자연의 흐름(비, 태양, 바람)과도 함께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은 진정한 삶의 기호이자 생의 원리로서의 시간과 공간을 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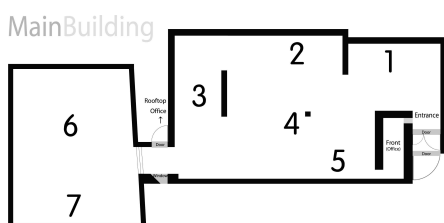
그것을 외치든, 속삭이든 심문섭의 작품들은 모두 역동적인 개념을 지향한다. 인간의 에너지, 자연의 에너지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유지하는 존재적 관계의 에너지. 그가 움직임의 꾸준한 탐색하고, 흐르는 물을 자주 환기시키고, 리듬과 반복과 덧없는 것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문섭은 자연을 고정시켜 환기하는 데 멈춰 있기보다는 삶을 현실로 숨 쉬게 하는 힘, 모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장들의 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택한다. 달리 얘기하자면 각각의 작품이 삶의 깨지기 쉬운 균형의 은유이거나 그 예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2008 심문섭展 서문 / 양리 프랑수아 드바이에 (미술 비평가)

## 심 문 섭

조각가. 1943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다. 1965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학과를 졸업했고 1968~1970년 국전에서 문공부 장관상과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1970년 한국 아방가르드협회(AG)회원으로 새로운 전위적 예술 표현을 시도했으며, 1971, 1973, 1975년 파리 청년 비엔날레에 선발되면서 국제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상 파울로 비엔날레, 인도 트리엔날레, 시드니 비엔날레, 카뉴 국제 회화제, 동경판화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부산 비엔날레, 서울 올림픽 국제 조각 심포지엄, 마하마 아외조각 심포지엄, 아틀레이드 프로젝트, 다치가와 프로젝트, 교토 정도 1200주년 기념전,통영 국제 조각 심포지엄 등에 초대 출품했으며 도쿄, 서울, 파리, 뉴욕, 베이징 등의 화랑과 경주 아트 선재 센터, 밀라노 무디마 미술관, 파리 팔레 루이알 정원, 니스 아시아예술 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헨리무어대상전 우수상, 김세중 조각상, 한불 문화상 등을 수상했고 프랑스 예술문화 훈장을 수훈했다.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심문섭展



1. The Presentation, 310×115×225cm, 2008, Bamboo, Wood, Canvas
2. The Presentation, 630×220×75cm, 2008, Wood, Steel
3. The Presentation, 310×264×320cm, 2008, Wood, Emergency lamp
4. The Presentation, 110×225×110cm, 2008, Stone, Water
5. The Presentation, 90×35×13cm, 2008, Steel
6. The Presentation, 920×85×840cm, 2008, Wood, Steel, Vinyl
7. Represent, 276×230×184cm, 2007, Wood

# Shim Moon-Seup | The presentation

5 ~ 25 November, 2008

Wood, earth, water, light, stone, plants, neons – looking at the materials that Shim Moon-Seup has worked with since the early 1970s, one is struck by the thought that he could easily have been one of the Arte Povera artists. That he did not join this movement which originated in Turin, Italy, was partly a matter of geography, but also because, at a deeper level, his artistic approach is in fact different from theirs. Even so, like its members Giuseppe Penone, Mario Merz, Giovanni Anselmo and Pier Paolo Calzolari, Shim Moon-Seup has always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his choice of materials and, more precisely, to the use of “poor” or “modest” materials, to quote two adjectives used frequently in descriptions of his work. Likewise, he has always been highly attentive to the space in which his works are to be inscrib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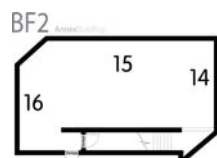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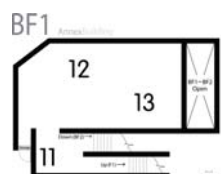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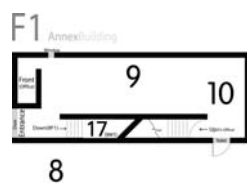
As a child, Shim Moon-Seup grew up close to nature, and he has remained close to it ever since. It is therefore perfectly logical that he should be interested in simple, elementary materials. The nature of matter brings him close to the matter of nature. And if he loves the essential, primitive (as in, close to the origins) aspect of these materials, it is above all for the power and density that emanate from the purity of water or the rough appearance of hewn wood. But even more than the specific character and intrinsic power of such and such an element, what Shim Moon-Seup seeks is the encounter and dialogue created by juxtaposing two or three of them together. For his work is organised essentially around the relations of tension and balance created by bringing together opposites such as hard and soft, straight lines and curves, verticals and horizontals, natural (a stone) and industrial (an iron sheet), etc.

These plays of contrast and this search for harmony are also evident in the way the works are presented. For Shim Moon-Seup is concerned not only with the visual aspect of the sculpture but also with that of what is around it. The form of each work, its presence, and even its carefully thought-out and chosen positioning in a place, are indeed conceived in order to reveal the context into which it is fitted, to make us look carefully at the space around it and the way it dialogues with its environment. And what is true for interior spaces is even more so in outdoor spaces. Shim Moon-Seup’s recent exhibition in the gardens of the Palais Royal, Paris (spring 2007), illustrated this to striking effect. Titled “Towards an Island,” it invited viewers to tack like boats in this setting little known for its maritime dimension, and to move around in new ways so as to discover the dozen works he had placed in the trees, along the paths, on the lawns or in the pools. Some of these moved in the wind, like the nets, or flying ships, that he positioned up in the branches, or the transparent cylindrical tubes that leaned towards the lawn in the slightest breath of wind. Others used water to create reflections or to act as fountains. Still others, in wood and steel, solidly anchored to the ground, rose up in fine rows. Air, water, earth ? the elements were brought into play and visitors had to look up, bend, and find perspectives in order to make the initiatory and poetic journey on which they were invited, and that, for a while, made us see this garden in a new way.

This was, then, a perfect example of the way Shim Moon-Seup reveals surrounding nature (whether artificial or not), and places his works in relation to the different elements with which they are intermingled ; of the way he fits them into a context. The principle is not to impose the work but to compose with the site, and often in an occasional, ephemeral way. For if the artist’s works play with space, then they also play with time and its meteorological variations (rain, sun, wind). Time and space as the very principles of life.

Whether they shout it out or whisper it low, all Shim Moon-Seup’s works are involved with the concept of energy : human energy, natural energy, and the energy in man’s existential relation to nature. Hence this constant search for movement, these frequent evocations of flowing water, the work on rhythms, cycles and transience. Far from focusing on a fixed evocation of nature, Shim Moon-Seup chooses to directly reveal the forces that breathe life into reality, the energy fields that generate all movement : in other words, he chooses to make each work an example and a metaphor of life’s fragile equilibrium.

## 심문섭 Annex



- 8, The Presentation, 205×195×205cm, 2008, Stone, Water, Bamboo
- 9, Represent, 440×19×140cm, 2007, Stone, Water, Wood
- 10, Represent, 250×50×50cm, 2007, Bamboo, Optical fiber, Installation electric
- 17(BM1), Represent, 65×160×65cm, 2006, stone, water, installation electric
- 11, The Presentation, 96×250×75cm, 2008, Wood
- 12, Represent, 250×82×102cm, 2007, Wood, Installation electric
- 13, Represent, 179×79×165cm, 2008, Wood
- 14, Represent, 176×255×72cm, 2007, Wood
- 15, The Presentation, 304×180×153cm, 2008, Steel, Stone, Installation electric
- 16, Represent, 210×36×180cm, 2008, Paper, Stone, Optical fiber